

## 초등영어교육: 이론과 현실의 재조명

김 덕 기  
(고려대학교)

---

Kim, Duk-Ki (2002). Elementary School English Teaching: Its Theory and Reality Revisited. SNU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 1-11.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elementary school was proposed and is now in practice on the basis of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which is also theoretically supported by innatists who argue that UG begins attrition around puberty and that language acquisition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beyond this period. This was proved true of first language acquisition and naturalistic SLA, but no evidence has been known about instructed second language learning in formal education. Elementary school ELT is supported by some parents who wish their children to learn this world language effectively, bu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s far from utilizing the learners' UG: few teachers are capable of providing authentic input, so the learners depend on their general intelligence and learning strategy rather than UG. It is suggested that high school age is optimum for utilizing learners' motivation, intelligence, and learning strategy.

---

### 1. 들어가는 말

조기 영어교육은 영어를 잘해야 성인이 되어서 경쟁력 있는 직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희망과 세계화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시책이

결합하여 과열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일부 영어 사업가들이 홍보하듯이, 만 12세가 지나면 외국어 학습은 이미 “환갑”이 지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이전에 장래에 중요한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학습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심지어 유치원 이전부터 영어를 가르치려고 엄청난 가계 지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세계화란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충분하게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편하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직종의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나 길거리의 행인들도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능력이란 길 안내하기, 물건 팔기, 인사 주고받기 등 기본적인 의사 소통 기능으로, 일부 상업 광고에서 주장하는 대로 약 20개 정도의 표현만 익혀도 충분하다. 사실상 이 정도의 능력은 그럴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약 1주일만 연습하고 암기하면 족할 것이다.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비교적 정확한 표현으로 더 이상의 의사 소통 기능을 익혀야 할 사람들이 있고, 듣고 말할 뿐만 아니라 글을 읽고 메모나 편지를 써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추상적인 주제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다. 전문직 외교관과 국제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무역 종사자, 국제 학술회의에서 영어로 논문을 발표하고 질문-응답에 응해야 하는 학자들, 전문직 통역자, 그리고 이런 인재들을 교육하는 영어교육 종사자들은 원어민 수준에 근접한 구사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최고 수준의 외국어 능력자는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0.2%(약 10만)이면 충분할 것이다. 미국의 ILR, FSI, 호주/영국의 ISLPR 이 제시하는 회화능력은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는데, 영어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은 3단계 이상, 외국인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 능력은 2단계 이상,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려면 1단계 이상, 길을 안내하거나 점원 등의 일은 0+이상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것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 Oral Proficiency Interview Scale

- 
- 0 Unable to function in the spoken language.
  - 0+ Able to satisfy immediate needs using rehearsed utterances.
  - 1 Able to satisfy minimum courtesy requirements and maintain very simple face-to-face conversations on familiar topics.
  - 1+ Able to initiate and maintain predictable face-to-face conversations and satisfy limited social demands.
  - 2 Able to satisfy routine social demands and limited work requirements.
  - 2+ Able to satisfy most work requirements with language usage that is often, but not always, acceptable and effective.
  - 3 Able to speak the language with sufficient structural accuracy and vocabulary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most formal and informal conversations on practical, social, and professional topics.
  - 3+ Often able to use the language to satisfy professional needs in a wide range of sophisticated and demanding tasks.
  - 4 Able to use the language fluently and accurately on all levels normally pertinent to professional needs.
  - 4+ Speaking proficiency is superior in all respects, usually equivalent to that of a well-educated, highly articulate native speaker.
  - 5 Speaking proficiency is functionally equivalent to that of a highly articulate, well-educated native speaker and reflects the cultural standards of the country where the language is spoken.

(Source: Brown 1994: 269)

영어교육에 관한 견해는 이와 같이 국가의 입장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성과가 겨우 “기본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다거나, 소수 정예를 교육시키기 위한 들러리격

의 교육 수요자들 (educational consumers)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실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자신의 자녀는 영어의 최고수준 능력자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최상급의 영어 사용능력자, 그 다음 수준 능력자, 그 다음 수준...식의 영어 사용자가 배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일 것이다. 가령 전 국민의 영어 사용 능력을 위에 제시한 사정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직종은 교육받은 영어 사용 원어민들의 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써, 실무급의 외교관, 국제 영업 종사자, 국제 변호사, 그리고 이들을 교육하는 교,강사들이다. 이들은 3+이상으로 국제회의나 영업 실무에서 영어가 불편하여 전문 지식과 식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들은 외국인의 영어 사용 흔적을 지울 수는 없으나 유창하고 정확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런 능력자의 수요는 0.1%(5만 내외)로 추산된다.

둘째 직종은 업무상 외국인을 통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로써 외국어 사용 직장 근무자, 모든 공무원,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이들은 영어로 질문을 받고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게 업무나 개인적 일에 관하여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의 말과 글은 문법과 발음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능력자의 수요는 1%(50만 내외)로 추산된다.

셋째 직종은 외국인과 기초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 종사자, 일반 지식인들이 이들에 속한다. 이들은 암기한 표현과 창의적인 어구를 사용하여 자신과 주변에 관하여 기술할 수 있고 자기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의 수요는 약 10%(500만 내외)로 추산된다.

이상의 인구를 모두 합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10%를 크게 넘지 않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10-20개의 영어 표현을 알아도 좋고, 몰라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외국어 표현은 몇 년씩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년을 영어 학습에 투자해도 위의 마지막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공교육에서의 영어 과목은 대단한 낭비가 된다.

## 2. 초기 영어교육의 이론적인 주장과 현실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1997년 초등영어가 편입되기 이전에도 영어는 일부 학교에서 과외활동으로 실시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이러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해야 한다는 찬성 논리(김진철, 1988; 박형기 외, 1991)와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신중 논리(안수웅, 1991)가 대조를 이루었다. 찬성 논리에 의하면 Penfield & Roberts (1959)의 중대시기가설, Lenneberg (1967)의 좌-우뇌 기능 분담론, Oyama (1976), Patkowski (1980)등의 영어 사용권 진입 연령 연구, 외국에서 외국어 교육을 시작하는 연령 비교표 등이다. 신중론에 의하면 ESL상황의 외국어교육이나 습득연구를 EFL상황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없는 것은 언어 습득 요인이 언어습득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환경과 학습자의 언어 필요성도 중요한 것인데, EFL상황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핍되어있어 성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수웅, 1991: 95-100). 초등영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에 진학한 후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영어 성적이 우수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가 더 높다는 실험연구도 있다 (이종혁, 1992; 이완기 외, 2001).

찬성론의 요지는 중대시기가설과 비교연구 결과로 압축된다. 그러나 중대시기 가설은 안수웅 (1991)의 주장대로 ESL과 EFL을 혼동하고 Krashen (1976)이 말하는 "학습" (learning)과 "습득"(acquisition)을 전혀 구분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 의식적인 학습의 결과를 McLaughlin (1978)의 말대로 "기능적인 훈련"을 했다면 acquisition으로 변할 수도 있겠으나, 안수웅이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주로 문형 연습과 노래하기 등의 활동에 의존하는 수업이라면 "학습"의 결과밖에는 나올 수 없다. 이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오기 전 몇 년 동안 영어를 "학습"했으면 중학교에 들어와서 비슷한 학습을 1년만 한 학생들보다 지필고사나 간단한 듣기 시험 성적이 더 우수할 것은 분명하고, 더구나 성적이 비교적 좋으면 그 과목에 상대적 호감이 가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특활 영어를 주 3회 학습한 이종혁 (1992)의 연구도 안수웅의 관찰결과와 대동 소이하다.

초등영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997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영어로 전문 서적을 읽고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영어 강의를 청강하게되는 때에 한번, 그리고 이들이 졸업한 후 우수한 영어 능력자가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그 이전 집단보다 더 많은가를 비교연구 해야 할 것이다. 이 때의 연구는 단순히 영어에 대한 흥미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ACTFL, TOEFL, TSE, TEPS 등 공인된 성적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잠정적인 연구는 처음 초등영어 교육의 대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즉 2003년)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앞으로 7년 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2002년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능력 자료를 비치해 둘 필요가 있다.

초등영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11세 미만의 아동들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연한 언어 습득 장치 (Universal Grammar, UG)가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이 시기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이 장치가 있으면 언어 입력이 열악한 (degenerate) 것이라도 스스로의 가설 형성, 검증, 수정 장치가 있으므로 성년이 된 후 이 장치가 쇠퇴한 후 언어를 습득하는 것보다 우수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그러나 제1언어 습득이론에 근거한 이 이론은 제2언어 습득의 경우, 주변에서 진정한(authentic) 언어 입력이 공급되고, 학습자가 해당 언어를 의사 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Patkowski (1980)나 Johnson & Newport (1989)의 자료를 보면 영어 사용권에 이민 온지 최소한 5년 후 어린이들의 영어가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을 보인바 있으며, 단기 승부에서는 오히려 성인이나 10대 청소년들이 우수했다는 관찰결과가 있다(Snow & Hoefnagel-Höhle, 1978). 언어 습득에 유리한 환경이 없어 추상적인 인지 능력에 의존하는 영어 학습 환경이 불가피하면 차라리 중학교 이후에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풍부한 언어 입력이 보장되고 교육 과정도 ESL환경에서와 같이 언어사용 능력 신장 위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영어 교육과정은 중등 영어 교육과정과 연계되면서 성취 목표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른다”)도 동일하고, 교수 방법도 유창성보다는 초기부터 정확성을 강조하며 (가령 “한 문장으로 지시 또는 명령을 한다”), 평가에 관한 조항

도 대단히 모호하다. (가령 “평가는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자극임을 인지한다”). 의사 소통 교수 방법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이므로 의사 소통 기능을 예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초등학교에서 학습할 모든 의사소통 기능을 예시문과 함께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를 낳고 있다. 의사 소통 기능은 Wilkins (1976)에 의하면 Notional Syllabus의 한 부분으로 실제 구현되는 언어는 셀 수 없이 많은데, 꼭 어떤 예시문을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것은 꼭 가르치라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고, 이 점은 아무래도 CLT/ALM을 혼동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초등영어에서 “Does he work in a store?”([별표 2])는 왜 꼭 가르쳐야 하는가?

[별표3]의 기본어휘표와 [별표4]의 언어 형식은 1930년대의 Oral Approach와 1940년대의 Audio-lingual Approach로 돌아간 것이다. CLT를 실시하려면 필수어휘표와 언어형식표의 제한을 두어서는 곤란하다. 이 교수 방법의 초기 정신은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언어구조의 정확성에 신경 쓰지 않고 말하고 쓰며, 조동사, BE동사, 관사 등 기능어보다는 내용어 중심으로 학습자 언어가 발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정상적인 학습자 언어의 발달은 뭉치말 (formulaic chunks), 2-3개의 구 구조, 기능어의 정확성이 부족한 단문구조, 비교적 정확한 단문 구조, 복문 구조, 2-3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된 담화 등의 순서로 발달하는데, 초등 5학년에서 벌써 2-3개 문장이 연결된 담화를 할 수 있는 말하기 목표가 제시되어있다.

공 교육에서 실시하는 초등 영어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사설학원이나 영어 캠프, 또는 국내외의 영어 이머전 (immersion) 프로그램에 보내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고 있다 (김규현 외 2인 2000). 국내의 이머전 프로그램은 서울의 Y초등학교, D초등학교의 예가 있고, 영어 캠프는 4-5개의 사설 단체와 서울시 교육청, 김포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200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특성은 원어민 교사들에 의하여 자발적인 의사 소통중심, 내용 교과를 영어로 학습하는 것 등 중대시기 가설에서 주장하는 UG의 활용이다. 그러나 공

통적인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여 일반 학생들은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영어로 내용교과를 공부하는 이머전 프로그램은 한국의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교사가 학습을 지도하는 법 규정의 문제도 심각하다. Y초등학교에서는 영어로 절반, 국어로 절반 내용 교과를 교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6학년이 되어도 영어 능력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들의 영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점은 일본에서 이미 80년대에 도쿄 가토가꾸엔 학원 산하의 학교에서 발생한 것을 일본 국회의원들이 간파하고 입법 조치하여 해결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점을 아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조기에 외국으로 유학보내고 있다. 영어에 유창한 인력을 조기 교육에 의하여 배출하려면 한국내에 영어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일반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은 철저하게 선택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방침은 싱가포르에서 1978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

### 3. 맺는 말

주로 국어를 매개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고, 보편문법 (Universal Grammar)보다는 학생들의 일반적 지능 (general intelligence)에 의존하여 영어를 학습해야하는 상황이 현실이라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으며, 영어교육의 시작은 성취동기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13세 이후가 오히려 적기이다. 그 이전 시기에는 자연상황과 유사한 언어 습득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이 조건은 교사가 원어민과 같은 언어 구사능력이 있어야한다는 조건이 발생한다. 즉, 자연상태와 유사한 학습환경을 교실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험은 비디오나 녹음 테이프를 듣고 따라하거나 영어 노래를 통하여 기계적 반복학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강요된 “열심”이나 기계적 학습에 의존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무리이다. 자기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아내고, 학습 전략 (learning strategy)을 창안하거나, 언어 능숙도는 부족하지만 교직 경험에 의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 전략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의 지도하에 영어를 학습해야하는 상황아래서는 15세이상인 되는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UG를 활용한 의사소통 학습을 실시하려면 교실 수업에서 자연스런 언어 입력 (authentic language input)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초등 교사의 수는 10%도 되지 않는다. 이 통계도 교사들의 자기판단에 의한 “신고”일 뿐, 공인된 사정 (rating)의 결과는 아니다. 교사의 영어 능숙도는 중등과 대학 영어교육에서도 문제시되지만, 13세 이후에는 UG에 의한 언어 습득이 아니고 학습자들도 스스로 언어학습전략을 터득하거나 배울 수 있어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초등교육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 영어 교육은 원칙적으로 영어 능숙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교원이 확보된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어와 “친숙하게 되고” 세계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등 막연한 교육목표를 성취하자면 지금과 같은 필수과목으로서의 영어교육의 명분이 선다. 그러나 제2언어 습득 이론과 교육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최고 수준의 영어 능력자를 배출하고,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영어 교육은 필수과목 성격을 지양하고 국가와 개인의 필요 분석에 의하여 그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영어를 배우려는 학생, 그리고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학교에서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장래나 국가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다. 꼭 배울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가르칠 인력도 없는데 전 국민이 영어 학습에 전전공공할 이유가 없다. 세계적인 안목,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호의적인 이해는 그 어려운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교육이 자칫 국가나 국민들의 필요보다는 영어교육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닌가 꼼꼼이 살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규현, 서경희, 박용예. (2000).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몰입학습 프로그램 실시 방안 연구. *영어교육*, 55(2), 281-307.
- 김진철. (1988). Necessity of Englis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영어교육*, 32, 125-138.
- 박형기, 배두본, 전조영, 및 정길정. (1991) 국민학교 영어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 *영어교육*, 42, 1-56.
- 안수웅. (1992). EFL환경에서의 영어 조기 교육. *영어교육*, 43, 83-112.
- 이완기, 최연희, 부경순, 및 이정원. (2001). 중학교 1학년 영어교육에 나타난 초등영어교육의 효과. *영어교육*, 56(4), 211-241.
- 이종혁. (1992). 국민학교 영어교육의 효과. *영어교육*, 44, 3-22.
- Brown, H. D.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Johnson, J., & Newport, E.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21(1), 60-99.
- Krashen, S. (1976). Formal and informal linguistic environments in language acquisition and language learning. *TESOL Quarterly*, 10, 157-168.
- Lenneberg, E. H. (1967).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Y: John Wiley & Sons.
- McLaughlin, B. (1987). The monitor model: S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Language Learning*, 28, 309-332.
- Oyama, S. (1976). A sensitive period in the acquisition of a non-native phonological system.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5, 261-285.
- Patkowski, M. S. (1980). The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30(2),

449-472.

Penfield, W., & Roberts, L. (1959). *Speech brain mechanisms*. NY: Atheneum Press.

Snow, C., & Hoefnagel-Höhle, M. (1978). The critical period for language acquisition: Evidence from second language learning. *Child Development, 49(4)*, 1114-1128.

Wilkins, D. A. (1976). *Notional syllabus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